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2

크신 가르침 앞 외도는 가라

[원문] 사자굴중무이수(獅子窟中無異獸) 상왕거처절호종(象王去處絕狐種) 수지왕사일륜월(誰知王舍一輪月) 만고광명장불멸(萬古光明長不滅)

[번역] 사자가 사는 굴에 다른 짐승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사라짐이며 누가 알리 왕사상에 뜬 한 둥근달 만고에 그 빛 밝아 길이 멀하지 않으니.

[신해(禪解)] 오늘 주련 여행은 가지산 석남사다. 신라 헌덕왕 16년(824)에 도의국사가 창건한 절로서 조선 현종 15년(1674) 탁령, 선철선사, 순조3년(1803) 침허가 각각 중수하였고 1957년 당시 주지인 이인홍 스님이 재 중수한 곳이다. 경내에는 창건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369호 석조부도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2호인 삼층석탑이 있다.

석조부도는 헌덕왕 때 건립한 도의국사 부도로서 높이 35.3m 팔각원당형인데 주위에 사자의 구름무늬가 조각되어 있으며 간석에는 안상 속에 화문대를 돌렸고 팔판 연화대에 놓인 탑신석 앞, 뒤에는 명문이 조각되어 있다. 침허루란 계곡에 걸친 누각이라는 뜻인데 그 속에 담긴 주련의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사자굴중무이수 상왕거처절호종: 사자가 사는 굴에 다른 짐승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사라짐이다.’

인간 아닌 짐승의 세계에서는 사자와 코끼리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그것은 곧 정의이며 진리이다. 고로 이 앞에서는 교활한 여우는 일천 조차 하지 못한다. 이처럼 부처님 같이 절대적인 위신력을 가진 분은 그 자체가 힘이다.

‘수지왕사일륜월 만고광명장불멸: 누가 알리 왕사상에 뜬 둥근달, 만고에 그 빛 밝아 길이 멀하지 않으니.’

왕사상은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설법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설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구(警句)이다. 즉 부처님의 법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도(外道)들도 감히 열선 거리지 못하며, 그 만고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둥근 달처럼 하늘에서 빛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요즘,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이 사건에 연루 되어 있는 정치인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금품수수 이야기는 게이트 사건의 압권이 다. 참으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써 격세지감을 느낀다.

주련을 이야기하는 지면에서 갑자기 백연차 게이트인가 하겠지만 나에게서는 그럴만한 사연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경,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 하립각에서 나라를 위한 불교 기도법회에 참석하고 간단한 모임을 가졌다. 그날 그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 내외와 불교계 원로 몇 분이 계셨는데 그날 산승(山僧)은 노 대통령 부부에게 주책없이 몇 마디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문인정부가 탄생시킨 세 번째 대통령이다. 그러나 앞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의 초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은 지금에 와서 “천하에 자기만큼 잘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거나 또는 그런 아집(我執)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문인정부의 대통령들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아집에 갇혀 결국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물질과 명예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 같은 수행자는 이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한 달 후엔 ‘부처님오신날’을 우리는 맞는다. 그래서 사찰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마다 연등축제 준비를 위해 분주하다. 서울시 역시 이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다. 어서, 한 나라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내고 부처님을 맞이해야 한다. 또한 우리 수행자와 불자들은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진리 사라지지 않고 만고에 밝은 보름달에 비유 부처님 가르침 바로 받들면 탐욕에 물들지 않아

가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가화만사성 국평천하(家和萬事成 治國平天下)’라고 하듯 대통령께서는 결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이날 노 대통령은 “저는 도덕성 하나만으로 대통령인 사람이다. 아들과 친인척을 잘 다스려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을 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후,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이 아닌 이 나라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그토록 도덕성을 자처하며,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의 장담은 한갓 휴지가 되고 만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 13위의 우리나라에서 정권마다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비리에 얽혀 검찰조사를 받더니 이제 대통령 부인과 아들이 사법처리대상에 오르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침계루의 주련내용 같이 사자와 코끼리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 같이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결코 박연차 게이트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더 불리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일곱 발짝을 걸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계(覺)를 외쳤다. 즉 이 우주만물 중에서는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석가의 탄생이 속세

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밝혀야 하는 내면의 반조를 역설적으로 표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 이 속에는 회색과 봉사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곧 어둠을 밝게 바뀌어 주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물며, 등불은 고사하고 물질에 얽매어 있다면 장차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모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2

생사의 대사를 해결하라

[원문] 若不見性 終日茫茫 向外馳求 竟佛元來不得 雖無一物可得 若未會亦須參善知識 切須苦求 令心會解 生死事大 不得空過.

자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밖으로 구하며 부처를 찾아도 원래 찾을 수 없는 것이니라.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해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알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실상자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든 경계가 끊어진 자리에 생각을 두고 있으니 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밖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주의 실상자리인 진여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진 겁니다. 업이 다 소멸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벽도 투시(透視)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지까지 들어가면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통(六神通)을 갖춘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먼 것이 아니예요. 견성을 해서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면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란 자유자재한 사람이며, 본래 갖추고 있는지라 쓸데없이 밖으로 구하려하지 않는 사람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주의 실상자리와 하나가 되어 무념무상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밖으로 구하며 부처를 찾아도 원래 찾을 수 없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 돌이 아닌 하나의 마음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쁘게 밖으로 구하며 부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처의 실상자리는 지금 체(體)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로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성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비와 우주가 하나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바로 자성을 본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념으로 염원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찾는다면 외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는다면 영원히 성품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 가운데 부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밖에 있다는 생각으로 찾았던 분들입니다.



상광사(常光寺)소장 달마도

이런 수행을 하는 분들은 성품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用)에서 보면 ‘관세음’ 하는 그 능이 우주와 하나고, ‘지장보살’을 염하면 그놈도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성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님이 따로 있어서 그분을 보려고 하거나 그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외도이며, 영원히 부처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구하여 마음을 알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실상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 즉,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얻을 것도 없다고 하지만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가르침을 받아서 성품자리를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지식(善知識)’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대부분 ‘착할 선(善)’자를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면 안됩니다. 우주의 실상자리를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또는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이 곧 부처님 마음이고 마음이 곧 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로 보고 법을 설하는 분을 우리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이라는 말을 했을 때 선(善)은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미 문자언어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을 가지고 지식의 논리를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을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니깐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정확히 알아야지 바른 공부를 할 수 있기에, 달마 대사는 ‘나고 죽으며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매우 큰일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겁(劫)을 통해서 보면 한 생이 참 짧은 생입니다. 한 생을 마감할 때 되돌아 생을 생각해 보면 꿈에서 깬 것과 똑같은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를 진짜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거든요. 우리의 본래마음은 생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그 자리인 것입니다. 육신은 껍데기이고 진짜 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90세를 살았어도 되돌아보면 꿈속에서 깬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생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탈종공고
• 사찰명 : 국통정사
• 법 명 : 해공 (유영진)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옥천리 541-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한방(韓方)치료로
간질(癲) 백반증(백납) 개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원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125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움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됩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산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날 짜 : 2009년 4월 25일(토) 저녁 9시 2009년 4월 26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복부-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깔을 관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켤레, 위생비닐장갑,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손목,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조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꼬리뼈, 차가우신분(호리호리 띠), 아개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번지, 내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체세오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 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탈종공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지 : 운산 (이길락)
• 주소 : 울산시 남구 두루왕 648-5
• 사찰명 : 우리불원 • 주지 : 성현 (유창식)
• 주소 :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6-6
• 사찰명 : 해오정사 • 주지 : 해오 (김봉규)
• 주소 :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18-22
• 사찰명 : 자성사 • 주지 : 연화심 (안병옥)
•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 1동 183-13
• 사찰명 : 만해사 • 주지 : 해명심 (이성희)
•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1129-4 대동다솜아파트 102동 302호
• 사찰명 : 천지암
• 주지 : 연화심 (윤혜명) / 해공법사 (최용대)
• 주소 : 부산 남구 우암 1동 121-2
상기 사찰과 상기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4월 22일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법하